



보도 일시	2022. 9. 20.(화) 08:00	배포 일시	2022. 9. 20.(화) 08:00
담당 부서	기동사업부 전투장비사업팀	책임자	부 장 조현기 (02-2079-5300)
		담당자	팀 장 허용도 (02-2079-5380)

대한민국 기동군단의 신속한 기동 지원의 핵심,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첫 삽을 뜨다.

-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1호기 생산 착수 -

- 기동부대가 하천을 신속히 건너기 위해 필요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의 첫 생산이 시작됐다. 올해 9월 20일 1호기의 생산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2027년까지 5,300여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형 자주도하장비를 기동군단에 전력화할 예정이다.
 - 자주도하장비는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배 또는 다리 형태로 운용되는 기동지원장비로, 기존의 리본부교 보다 기동성, 운용성, 생존성이 월등하여 기동군단의 기동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리본부교(RBS)*보다 설치시간은 약 60~70% 단축되며, 운용 인원도 최대 80%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또한, 약 6시간의 별도 준비시간이 필요했던 현용장비와 달리 준비시간이 불필요하고, 장마철 하천의 빠른 유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.
- * 리본부교(RBS: Ribbon Bridge System): 하천 장애물 극복을 위한 장비로 하천에 진수돼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하여 명명됐다. 1972년 미국에서 개발됐으며, 우리나라는 1992년에 전력화했다.

- 한편, 자주도하장비는 기술협력생산사업으로는 최초로 국산화율 90% 이상 달성에 도전한다.
 -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 원제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으로, 자주도하장비는 한화디펜스가 독일 GDELS(General Dynamics European Land Systems)사의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'27년까지 생산할 예정이다.
 - 또한, 본 사업에는 홍일기업 등 35개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선체 구조물 등 135종 핵심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핵심기술 확보 및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뿐만 아니라 장비 배치 이후 운용유지 간 발생할 수 있는 후속군수지원 문제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(육군 준장 조현기)은 “기술협력생산으로는 최초로 국산화율 90% 달성에 도전하는 자주도하장비사업은 기술협력생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, 우리나라의 방산육성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 라고 밝혔다. <끝>

< 붙임 > 자주도하장비 관련 참고자료



< 육상운용 >



< 수상운용 >



< 문교운용 >



< 부교운용 >